

7-19-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복음 1:1-14

말씀제목: 주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는 축복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주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성령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 거리에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들이 되라.”(잠 8:1-5)

선지자 이사야는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할 때 주의 성령 안에 이 두 가지가 들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사 11:1-2)

그가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할 때, 앞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 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는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잠 8:6-17)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은 샘물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잠 8:22-31)

주께서는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자신을 만나는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지나갈 때 눈으로 보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고 있었을 때 십이 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주의 옷을 만지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온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그 여인을 둘러보시며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4-34)

오늘날에도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행위를 계속하려고 모입니다. 그러나 유출병으로 고통받은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그분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믿는 자에게만 그분의 능력이 나감으로써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